현대기아차그룹 결핵퇴치 파트너로…

대한결핵협회(회장 김성규)는 12월 12일(금) 14:00 현대기아차그룹(대표 정몽구) 양재사옥 대회의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 및 후원' 약정식을 갖고 그룹 전 임직원이 씰 모금 및 결핵퇴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식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임직원 '1인 1씰 모금 운동' 및 회사 경영진 명의로 발송되는 연하장에 씰을 붙여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핵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을 기증하기로 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 내에 크리스마스 씰을 붙인 이메일 카드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e-카드 발송 웹페이지를 열어 인터넷을 통한 결핵퇴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기증받은 스타렉스 차량은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의원의 환자이송용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작은 씰 한 장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에 현대기아차그룹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서 씰 모금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현대기아차그룹 서병기 부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규 회장은 "사회적약자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의 이번 캠페인 참여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대한결핵협회가 결핵의 조기 퇴치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